

한솔케미칼, 완주 공장에 400억원 증설 투자

송고시간 | 2023-02-07 17:10



한솔케미칼 로고

[한솔케미칼 홈페이지 캡처]

(완주=연합뉴스) 임채두 기자 = 반도체 증착가스인 프리커서 등을 생산하는 한솔케미칼이 전북 완주 공장에 대한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.

완주군은 7일 군청에서 한솔케미칼과 '완주 공장 증설 투자 양해각서(MOU)'를 체결했다.

이 자리에는 박준규 한솔케미칼 완주공장장, 유희태 완주군수,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.

이들은 완주 일반산업단지 내 한솔케미칼 공장에 내년까지 4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.

이로써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석케미칼, 코웰패션, 진로지스틱 등 8개사가 4천854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완주군은 설명했다.

군은 한솔케미칼의 공장 증설 투자로 수십 명의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완주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생산 협력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유 군수는 "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온 한솔케미칼의 추가 투자를 환영한다"며 "완주를 생산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3/02/07 17:10 송고

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

Copyright (C) Yonhapnews. All rights reserved.